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6월 2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	• 스포츠교류팀장 김문숙 ☎440-4951 • 담당자 강성민 ☎440-49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ITF 인천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5일 개막

- 6. 5~6. 12. 열우물경기장, 10개국 100여명 선수 참가 -

- 사전예약 없이 무료 관람 가능 -

3년 만에 관중을 맞이하는 국제여자테니스대회가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십정동 열우물경기장에서 ‘2022 ITF 인천국제여자테니스 투어대회’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연속으로 대회개최가 취소됐었다.

그러나 시와 인천테니스협회가 일상회복과 테니스 스포츠 발전을 위해 올해는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세계 각국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인천에 모여 실력을 겨룰 수 있게 됐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복식전 등 총 2개의 부문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10개국에서 1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경기방식은 토너먼트로 각 경기는 3세트 매치로 진행된다.

그랜드슬램대회와 WTA투어대회에 이은 서킷 규모의 대회로, 총 상금은 2만5천 달러(한화 약 3천1백만 원)이고, 대회 우승자에게는 세계 랭킹 포인트가 주어진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젊은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세계 각국 여자 테니스 선수들의 기량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시민들의 관람과 응원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사진> 관련사진

ITF 인천 국제여자테니스투어대회

대회기간 2022. 6. 5.(일) ~ 6.12.(일) [8일간]
 개최장소 열우물 테니스경기장

주최 ITF* 국제테니스연맹
 KTA 대한테니스협회

주관 ICTA 인천광역시테니스협회

후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체육회

일 자	일 정
6월 05일 (일)	예선 1회전
6월 06일 (월)	예선 2회전
6월 07일 (화)	예선 결승 단식 본선 1회전
6월 08일 (수)	단식 본선 1회전 복식 1회전
6월 09일 (목)	단식 본선 16강 복식 QF
6월 10일 (금)	단식 QF 복식 SF
6월 11일 (토)	단식 SF 복식 결승
6월 12일 (일)	단식결승



| 협찬 |







